

‘광주 아버지’ 오방 기념관 다음달 개관

〈최흥중 선생〉

전문성 지닌 비영리법인 단체 대상 운영자 모집

민족운동·빈민구제 헌신 다양한 콘텐츠들 갖춰

광주 남구가 한 평생을 병들고 굶주린 한센병 환자와 결핵 환자를 돌보다 삶을 마감한 오방 최흥중 선생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 개관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곳 시설을 관리·운영할 단체를 공개모집한다.

남구는 4일 “오방 최흥중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위탁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현 기준으로 광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 단체로,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학예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내정돼 있는 단체만이 지원 가능하다.

남구는 오는 13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서류 접수 및 심사를 통해 기념관 관리·운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서류 접수 기간은 공고 기간인 12-13일 이틀간 진행되며, 남구청 7층 문화관광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이달 중순께 수탁자 서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위탁자를 선정한다.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 개관 예정인 오방 최흥중 기념관은 국비와 시비 14억원이 투입돼 양림동에 지상 1층에 연면



오방 최흥중 기념관 조감도

적 451㎡ 크기 가량으로 지어졌으며, 전시실을 비롯해 영상실, 프로그램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개관을 앞두고 현재 기념관 내부 전시공사와 함께 영상물을 비롯해 백범 김구 선생으로부터 받은 회화 ‘화광동진’과 러시아 성경, 훈장 등 다수의 전시물 등 콘텐츠 시설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주의 아버지’로 불린 최흥중 선생

은 1904년 광주 제중병원(현 광주기독병원)에 근무하며 우일선 선교사와 포사이드 선교사를 도와 한센병 환자 치료에 헌신했으며, 3·1운동 당시 광주지역 총책으로 민족운동에 뛰어들어 만세시위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또 광주YMCA를 설립하고, 광복 후에도 결핵 환자와 한센병 환자 등 사회적 냉대를 받은 사람들을 돕는 빈민구제 활동에 힘썼으며, 신간회 광주지회장과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전남지회장을 역임하는 등 광주를 대표하는 사회 운동가로서의 삶을 살다가 유명을 달리했다.

광주지역 첫 장로이자 목사로서도 활발한 선교활동과 교육운동에 전념했던 고인의 장례식은 지난 1966년 5월18일 광주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지기도 했다.

/문철현기자

●우리동네 의원을 소개합니다 - 전미용 북구의회 의원

“무엇보다 주민과 아이들 안전에 최선 신뢰 바탕 섬기는 의정활동 전력할 것”

아침 6시에 주민들의 민원전화를 모닝콜로 삼으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는 의원이 있다. 구민을 섬기는 공복 자세로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전미용 광주 북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 의원은 정계에 첫 발을 내딛은 초선의원이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지역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행복한 터전을 마련해 주자 하는 마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도전하게 된 것이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측은지심의 마음과 더불어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지역 일꾼이 되는 게 소신”이라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의원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의 정치철학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



대관계를 지니고 있는 ‘소통하는 의원’으로도 정평 나 있다.

전 의원은 “올해로 6년째 북부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곳곳이 안전사각지대로 노출돼 있는 곳을 많이 봤다”면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회했다.

이어 “지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사고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과 정책 또한 펼쳐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는 가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더불어 호흡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최철현기자

푸른길 공원에 ‘무인 스마트 도서관’ 조성

남구 주월동 빅스포 뒤 위치…내달 초 시범 운영 예정

지역 주민들의 독서 생활 활성화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푸른길 공원에 ‘무인 스마트 도서관’이 운영된다.

4일 남구에 따르면 365일 무인 도서대출 및 반납이 가능한 무인 스마트 도서관을 주월동 빅스포 뒤 푸른길 공원에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구는 9월 독서의 달에 맞춰 9월 초부터 시범 운영한 뒤 같은 달 말에 정상 개관할 방침이다.

무인 스마트 도서관은 빅스포 뒤 주차

장 인근에 3평 남짓 크기로 가설 건축물 형태의 부스로 지어질 예정이다. 다음 달 중으로 자료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버 네트워크와 VPN(보안장치) 설치를 위한 전기 및 통신 공사가 진행되고, 무인 도서 대출 반납기 설치도 서둘러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구는 푸른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책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신간 서적 및 베스트셀러 400여권을 구입해 이곳 도서관에 비치할 계획이다.

/문철현기자

남구 다중이용시설 보행 장애물 실태조사

광주 남구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중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행 장애물 제거 사업을 추진한다.

4일 남구에 따르면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턱과 계단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보행 편의를 위해 경사로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보행 장애물 제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중 이용시설 보행 장애물 제거 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남구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약국과 음식점, 편의점, 슈퍼,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 240개소이다.

/문철현기자

북구, 사회적기업 지원 박차

광주 북구가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관내 (예비) 사회적기업 10곳과 ‘2019년도 제2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약정체결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선정된 10개 기업(신규 2개, 재심사 8개)에 8월부터 1년 동안 사업비 최대 6억여원을 투입, 근로자 78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기업운영 연차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예비 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다.

/최환준기자



도자기체험 재밌어요

광주 북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2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등산의 인물과 전설이라는 주제로 ‘무등산 시가문화권 문화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어린이들이 충효동 평촌마을에서 도자기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편리하고 안전한 ‘안심택배보관함’ 서비스 이용하세요

북구, 문흥동청소년수련관·각화사회복지관 2곳 설치

택배기사 사칭 사건사고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북구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택배보관함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지난 7월부터 1인 가구와 직장 생활로 바쁜 맞벌이 가구의 부재중 택배

수령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낯선 사람을 대면함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택배보관함’ 서비스에 나섰다

안심택배보관함은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이용해 물품을 수

령하는 서비스로 바쁜 일상생활 속 택배수령에 대한 불편 해소와 택배기사 사칭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지난 6월 북구 청소년수련관 별관(대천로 86)과 각화동 각화종합사회복지관(군왕로207번길 6) 등 2개소에 안심택배보관함을 설치했다.

이번 서비스는 택배 이용 시 안심택배

보관함을 물품 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택배기사가 물품 보관 후 인증번호(비밀번호)를 수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물품 수령자는 택배보관함에 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해 물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심택배보관함은 주민 누구나 365일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물

품은 48시간 이내에 찾아야한다.

/최환준기자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신창동 가도빌딩, 근린상가 2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대출-3억5000만원있음 즉시입주가능
- 임대 - 보증금1억에 월400만 가능
- 매매 - 매수자 제시 요망(8월14일까지)

문의. 010-6834-7400